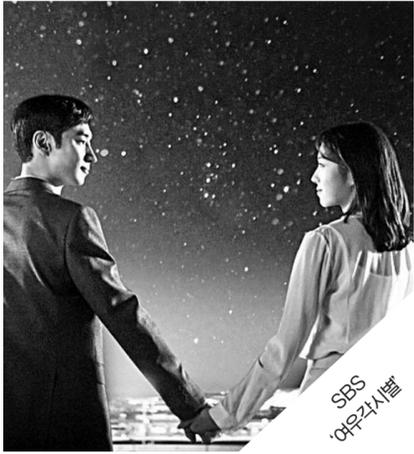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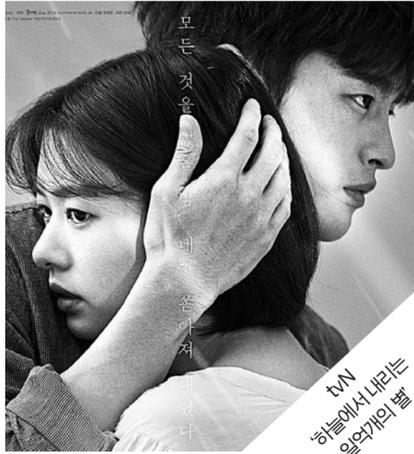


미스터리부터 판타지까지 “가을 멜로 골라보는 재미가 있네”



SBS '여우각시별'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JTBC '뷰티 인사이드'

오감과 육감이 한껏 예민해지는 가을, 안방극장에도 다양한 장르의 멜로가 찾아왔다. 판타지 멜로부터 미스터리 멜로, 현실감 충만한 멜로까지 각자 취향에 맞춰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 SBS TV 월화극 '여우각시별'은 배경부터 독특하다. 그동안 공황을 배경으로 한 멜로가 없지는 않았지만 여객 서비스처 등 의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황 내부까지 속속들이 비추는 드라마는 '여우각시별'이 처음이다. '여우각시별'은 공황이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주는 설렘과 낭만에 더해 공황 신입 직원들의 고단한 사회 적응 과정과 풋풋한 멜로, 또 주인공 이수연(이제훈 분)의 미스터리까지 다양한 소재가 어우러진다. 여주인공 한여름(채수빈)의 사고공치성 캐릭터를 놓고 호불호는 갈렸지만, 특별한 괴력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겨야 하는 수연의 사연에 눈길이 쏠리면서 시청률 1회 5.9% (이하 닐스코리아, 비지상파는 유료가구)에서 4회 8.6%로 올라 상승세를 이뤘었다. '구가의 서', '낭만닥터 김사부' 등을 통해 섬세하고 촘촘한 필력을 자랑한 강은경 작가가 '괴력 말 미스터리' 등을 어떻게 '휴먼 멜로'로 풀어낼지 관심을 끈다. tvN 수목극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은 미스터리 멜로를 표방하며 첫 방송부터 다양한 복선을 노렸다. 서인국의 복귀작으로도 관심을 끈 이 작품은 16년 전

'여우각시별' 로맨스·미스터리 소재 다양 '...일억개의 별' 日 국민드라마 리메이크 '뷰티 인사이드' 영화와 다른 전개 색달라
기후라 다쿠야와 후카쓰 에리가 주연하고 일본 후지TV에서 방송해 '국민 드라마'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끈, 원작부터 탄탄한 드라마다. 리메이크작 역시 초반부터 남다른 기억력을 지닌 미스터리한 남자 김무영(서인국)과 상처를 지닌 여자 유진강(정소민), 무영과 대립하는 진강의 오빠 진국(박성웅), 진강의 친구 백승아(서은수)가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을 그려내며 호기심을 자아냈다. 1회 시청률 역시 4%대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 원작 결말을 이미 많은 사람이 아는 가운데 과연 색다른 전개를 보여줄지, 아니면 원작에 충실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JTBC 금토극 '제3의 매력'은 그야말로 '현실 멜로'다. 물론 남녀 주인공이 우연처럼 계속 부딪히는 것은 극적이지만,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 자체는 지질하면서 또 풋풋하고 순수하면서도 감잡힌 '현실의 것'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미녀의 정석'이라는 꼬리표에서 벗

어나 '츰티' 풀풀 나는 남자로 변신했다. '미녀의 정석'은 아니지만 은근한 매력에 자랑하는 배우 이승과의 호흡도 무난한 편이다. 다만 작품에 대한 평은 아직 엇갈린다. 늘 섬세한 연출을 보여준 표민수 PD 작품인 만큼 따뜻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면은 이번에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화면이 새롭지 않고 진부하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시청률 역시 1%대에 머문다. 드라마 '또 오해영'의 송현욱 PD와 배우 서현진이 다시 만나 기대를 모으는 JTBC 월화극 '뷰티 인사이드'는 판타지 멜로다. 주기적으로 얼굴이 변하는 여자 한세계(서현진)의 로맨스는 이미 동명 영화에서 본 콘셉트지만, 영화와는 전혀 다른 전개라 새롭다는 평이 있다. 영화보다 '스토리'가 더 강화한 측면에 눈에 띈다는 반응이다. '한 달에 일주일 타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자'에 더해 '일년 열두달 타인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라는 설정 등이 추가된 덕분이다. 김성령, 김준현, 강소라 등 다양한 카메오를 보는 재미도 있다. 다만 송현욱-서현진 조합인 만큼 '또 오해영'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은 있다. 시청률은 2%대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임진왜란 거치며 성장한 한글 재조명

EBS 1TV '다큐프라임' 오늘 방영

EBS 1TV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밤 9시 50분에 특집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한글, 전란 속에 성장하다'를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글, 전란 속에 성장하다'는 한글이 임진왜란을 거치며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이 땅의 주체적 문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다양한 사료와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왕이 한글을 통해 백성들과 직접 소통한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라고 시작하는 '선조국문유서'는 선조가 백성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한 문서로, 임진왜란 시기 전황과 조선 시대 한글 쓰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선조국문유서'의 의미를 "현대의 대통령이 다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해 보겠다고 말하는 상황과도 닮아 있는 모습"이라며 "선조가 소위 언문 교서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전쟁의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식적인 글이나 문서는 한문으로만 작성하던 시대에 임금이 한글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백성과 소통한 사실을 볼 때, 한글은 당시 온 백성의 언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사회적 성장과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과 급변하는 조선 사회 속에서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이 땅의 주체적 문자로 자리매김하는 한글을 보여준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한글이 변화하는 모습은 많은 한글 편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592년 12월,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학봉 김성일은 안동의 부인에게 고향에 있는 아내와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한글 편지로 적어 보냈다. 이는 당시 한글은 임금에 물론, 양반 남성들도 일상에서 쓰는 문자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490년대로 추정되는 나산결 권관이 아내에게 쓴 한글 편지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다. 임진왜란 직후, 17세기 초 현풍 광씨의 한글 편지에는 장모에게 아이들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글의 성장과 함께, 편지 속 조선의 흥미로운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즐거움 또한 쏠쏠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	30 930 MBC 뉴스 55 572돌 한글날 기념식	10 좋은 아침
[10]	00 훈민정음 반포 572돌 한글날 경축식 55 한글날 특집 다큐 이상한 한글나라의 엘리트		35 한글날 특집 다큐 우리들의 행복날 소통을 위하여	10 미스마:복수의 여신(재)
[11]	4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35 진짜사나이 300 스페셜	
[12]	00 KBS 뉴스 10 한국인의 밥상(재)	00 한글날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5 MBC 뉴스 55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SBS 뉴스 20 빅픽처 패밀리 1~2부(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도전, 골든벨(재)	50 최고의 이혼 (재)		45 2018 KBO 프로야구 (KIA:롯데)
[2]	5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5 내 뒤에 테리우스(재)	
[3]	10 가요무대(재)	00 1 대 100 (재)		
[4]	10 한글날 특집 또 하나의 한류 한국어를 만나다	00 안녕하세요 스페셜 <날리 알고 싶은 고민>	25 MBC 뉴스 35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영화의 바다로		50 여우각시별(재)
[6]	00 6시 내고향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지하철 2호선 찬반 토론 <지하철 2호선 건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승터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피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불뿔당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회사 가기 싫어 (재) 55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엄마를 찾지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알수록 신비한 부탄 2부 고원의 땅 하이 가는 길>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파프리카	<나의 좌충우돌 집짓기 2부 친애하는 나의 오두막집>
09:00 뽕뽕뽕 뽕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엄마를 찾지마(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50 한국영화특선 <전국노래자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술밥과 소고기 감자조림>	16:45 당동맹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1일 甲戌)

子 36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적당히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0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유리한 결과가 있다. 72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한다. 84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언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67, 23	午 42년생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야만 하느니라. 54년생 머지않아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66년생 불합리한 판단이니 벗어나야만 한다. 78년생 소를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90년생 선수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78
丑 37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벅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49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61년생 막힘이 없으니 만사형통 하겠다. 73년생 처음에는 엇갈렸다가 나중에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85년생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22, 38	未 43년생 어떠한 재난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55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67년생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79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91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46
寅 38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50년생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62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74년생 가깝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다. 86년생 간 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82, 34	申 44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라. 56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68년생 가변적인 모습이니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 8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92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9, 92
卯 39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51년생 충격이 클 수다. 63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75년생 의외의 길조들이 모여서 매우 수월한 여건이 조성 될 수도 있다. 87년생 주변의 생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행운의 숫자 : 15, 43	酉 45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57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69년생 출가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81년생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3년생 역량을 강화하라. 행운의 숫자 : 05, 84
辰 40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 52년생 일상적인 구조사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76년생 참으로 쉬운 일이니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88년생 기본 소식이 메아리쳐 올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79	戌 34년생 막연하다면 단처를 드러내게 된다. 46년생 큰물로 나아가야 대어를 잡을 수 있느니라. 58년생 금금해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70년생 머지않아서 곧 표면으로 드러나리라. 82년생 준비하고 있으면 적기에 융체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93, 00
巳 41년생 분수에 맞지 않는 연행으로 비약한다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나. 53년생 여건을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65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77년생 함께 나아 갈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89년생 전과 똑 같다. 행운의 숫자 : 84, 85	亥 35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행하는 것이 무방하다. 47년생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59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71년생 김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83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3, 90